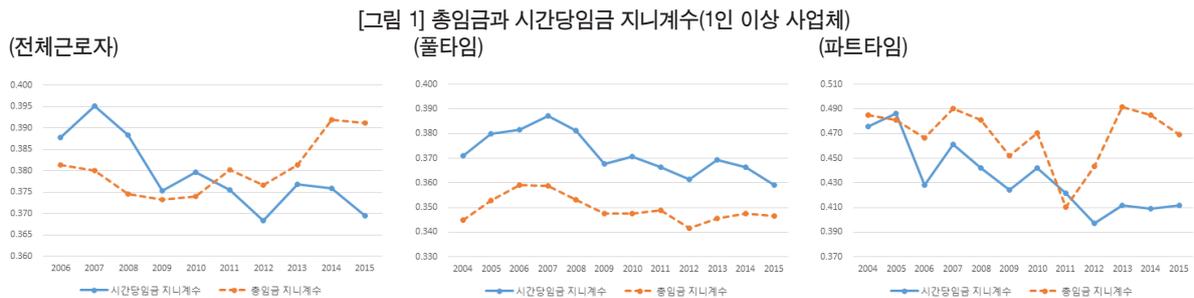


2006~2015년 임금불평등 변화의 요인

—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전병유(한신대학교 교수)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대 중반 이후 2006~2015년 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1)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5년, 각 연도.

2) 전체 근로자에서 파트타임의 증가(표 1 참조)는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은 상대적으로 풀타임에 비해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표 2 참조), 시간당임금의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표 1〉 파트타임의 구성비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근로자대비 비중 (%)	전체	9.6	9.3	10.8	10.5	11.4	13.2	14.2	15.6	17.3	15.9
	15시간 미만	0.6	0.6	0.6	0.6	0.7	1.1	2.1	2.4	3.5	3.5
	15~20	1.1	0.9	1.1	1.2	1.6	1.9	2.4	2.3	2.7	2.7
	20~25	1.5	1.4	1.6	1.8	1.8	1.9	2.0	2.1	2.3	1.9
	25~30	3.8	3.7	3.9	4.1	4.1	5.5	4.8	4.7	5.0	4.6
	30~35	2.6	2.7	3.6	2.9	3.2	2.8	2.9	4.1	3.8	3.1
주당 근로 시간별 구성비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100.0
	15시간 미만	6.2	6.0	5.2	5.6	5.9	8.4	14.9	15.1	20.0	22.3
	15~20	11.3	10.0	10.1	11.1	14.0	14.6	16.7	15.0	15.5	17.2
	20~25	15.9	15.4	14.9	17.0	16.1	14.1	13.8	13.6	13.1	11.9
	25~30	39.2	39.5	36.2	39.0	35.8	41.5	34.0	30.2	29.1	29.2
	30~35	27.5	29.1	33.6	27.2	28.1	21.4	20.6	26.1	22.2	19.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5년, 각 연도.

〈표 2〉 임금총액과 시간당임금의 추이

(단위 : 명목 원)

	전체		풀타임		파트타임	
	임금총액	시간당임금	임금총액	시간당임금	임금총액	시간당임금
2006	2,071.0	11.1	2,174.2	11.3	932.6	9.2
2007	2,177.7	12.1	2,279.0	12.3	1,060.8	10.5
2008	2,275.1	12.9	2,389.9	13.0	1,259.4	11.9
2009	2,268.6	12.4	2,416.1	12.7	985.4	10.0
2010	2,315.6	12.9	2,471.4	13.1	1,140.9	11.7
2011	2,413.3	13.8	2,633.6	14.2	1,013.4	11.6
2012	2,510.8	15.0	2,750.7	15.3	1,113.4	12.8
2013	2,621.3	16.2	2,846.9	16.5	1,404.6	14.8
2014	2,694.7	16.7	2,996.3	17.2	1,253.1	14.4
2015	2,733.8	16.0	3,036.5	16.4	1,120.5	14.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5년, 각 연도.

3)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로 측정하고 임금회귀방정식에서 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기여도로 분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임금불평등의 요인 분해를 시도하였음.

-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 요인 분해 결과 (풀타임, 시간당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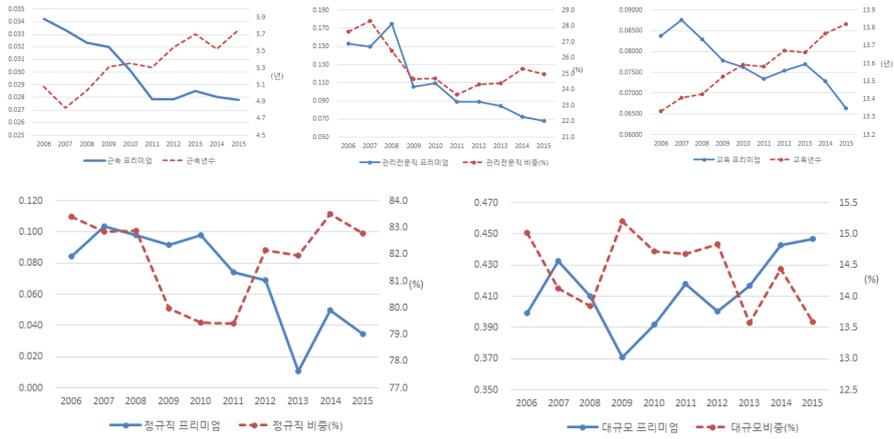
절대적 기여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남성)	0,011	0,010	0,010	0,013	0,013	0,012	0,011	0,011	0,011	0,012
연령	0,007	0,007	0,007	0,006	0,007	0,006	0,006	0,006	0,006	0,006
교육연수	0,018	0,020	0,019	0,019	0,019	0,019	0,019	0,018	0,018	0,017
노조가입	0,001	0,001	0,002	0,002	0,001	0,002	0,002	0,001	0,000	0,002
근속	0,033	0,030	0,027	0,030	0,027	0,029	0,026	0,026	0,027	0,027
경력	0,016	0,013	0,012	0,012	0,015	0,014	0,014	0,013	0,014	0,011
업종	0,002	0,003	0,003	0,003	0,003	0,003	0,002	0,003	0,003	0,002
직종	0,016	0,017	0,018	0,012	0,014	0,012	0,013	0,012	0,012	0,011
고용형태	0,002	0,003	0,002	0,003	0,003	0,002	0,002	0,000	0,002	0,001
규모	0,024	0,023	0,025	0,023	0,028	0,030	0,026	0,026	0,028	0,029
모든변수	0,131	0,126	0,125	0,123	0,130	0,128	0,119	0,117	0,121	0,118
전체	0,174	0,170	0,162	0,158	0,157	0,149	0,142	0,141	0,135	0,133
상대적 기여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남성)	6.1	5.6	6.2	8.0	8.0	8.2	7.8	7.7	8.5	8.8
연령	4.2	3.9	4.1	4.0	4.4	4.1	4.0	4.2	4.3	4.2
교육연수	10.4	11.6	11.5	11.9	12.4	12.5	13.4	13.0	13.5	12.9
노조입	0.6	0.6	1.3	1.1	0.8	1.1	1.1	0.9	0.2	1.2
근속	19.2	17.5	16.7	18.8	17.3	19.3	18.0	18.8	20.4	20.3
경력	9.4	7.9	7.4	7.7	9.3	9.5	9.7	9.0	10.1	8.1
업종	1.2	1.5	2.1	2.1	1.9	2.1	1.3	2.1	2.4	1.7
직종	9.0	10.2	11.3	7.5	8.6	8.1	8.9	8.2	9.0	8.5
고용형태	1.0	1.6	1.5	2.2	2.2	1.3	1.3	0.3	1.2	1.0
규모	13.8	13.6	15.3	14.7	18.0	19.8	18.3	18.8	20.6	22.0
모든변수	74.9	74.0	77.4	78.0	82.8	85.9	83.7	83.0	90.2	88.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5년, 각 연도.

4) 임금회귀방정식에서 변수들의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하고 이를 변수값의 변화와 같이 제시해본 것이 [그림 2]임.

-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2006~2011년간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근속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줄면서 근속의 불평등 기여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관리전문직의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줄면서 관리전문직 비중도 줄어들어 불평등 기여도가 줄어들었음.
- 교육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줄기는 하였지만, 교육연수가 증가하면서 불평등 기여도의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정규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정규직의 비중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기여도의 감소 폭은 크지 않았음.
- 사업체규모의 경우,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의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이 증가하면서, 불평등 기여도가 커졌음.

[그림 2]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임금프리미엄과 구성비중 변화



주 : 1) 변수들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임금회귀방정식에 변수들과 연도더미들의 교차항을 추가해서 추정
한 것임.

2) 정규직은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재택, 일일, 특수고용 등)을 제외한 근로
자를 의미하며, 대규모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의미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5년, 각 연도.